

尹 탄핵 선고 앞두고 광주 은 이재명

“위중한 시기...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

탄핵 집회 중 숨진 당원 빈소 조문 5·18민주광장 단식농성장도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에 숨진 광주지역 당원을 한강 작가의 '소년의 온다' 작품과 비유해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후 “국민들의 일상적인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풍천노숙하며 밥을 굶고 항의하며 싸우다 운명을 달리하기도 한다. 신상길 당원도 탄핵을 위해 싸우다 운명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밤에도 평화로 일대,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며 눈발 날리는 추운 밤을 새는 분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은 참으로 위중한 시기이다”며 “경제와 안보, 평화, 민생, 민주주의 등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어 현재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히 종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은 죽었지만 그 폐악과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총과 칼로 국민을 쏘고 찔렀음에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전위 쿠데타의 책임을 묻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제주 4·3 사건과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염두에 둔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배제’ 법안까지 거부권을 썼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위원으로서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보인다”며 “국민과 역사가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또 5·18 민주묘역에 대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영혼의 공간”이라고 표현했고, 방명록에는 ‘함께사는 세상, 오월정신으로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고 신상길 당원의 빈소에 이동, 조문 후 유족을 위로했다.

민주당 당원인 신씨는 전남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사거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심장 지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화·참배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도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해주시던 동지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미어진다”며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문 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5·18 민주광장에서 단식농성 중인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을 만났고, 저녁에는 이곳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윤석열 즉시 탄핵 촉구 광주 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묵념을 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NEWS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전남지역 대학까지 확대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2025년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 1학기부터 2024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누적분에 대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한 자, 광주 및 전남 소재 대학(원)의 재·휴학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로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전남소재 대학까지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youth.gwangj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062-613-3692)로 문의하면 된다. 서류 검토 및 대출금 조회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6월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계좌로 이자 지원액이 입금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나 타 지자체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민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 연쇄부도 방지 ‘중기 매출채권보험’ 지원

시 50%·신한은행 20% 등 보험료 최대 70%까지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 '2025년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예상치 못한 거래처 부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막아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중소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대우위니아그룹과 한국건설기

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당시 매출채권보험이 협력업체인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보호막 역할을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광주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예산 3억원을 투입해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연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 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험료의 10% 할인을 받은 후, 나머지 보험료의 50%를 광주시가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광주시 지원을 받는 기업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보험료의 2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전체의 30% 정도이다.

지원 신청은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험센터에서 현장 접수하며,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험센터(062-1588-6565), 광주시 창업진흥과 기업지원팀(062-613-38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성장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거래처의 대금 미회수로 인한 경영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

도, 최신 드론영상 직접 제작...10년간 35억 절감

관광지·도정 현안 지원 대상지 등 플랫폼에 무료 공개

전남도는 2015년부터 드론을 직접 운영해 최신 항공영상 촬영 등 분야별 행정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연간 약 3억 5000만원, 총 35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순천만정원, 해남산이정원 등 103곳의 영상을 촬영, 전남의 대표 관광지인 현안 지원 대상지 영상을 제작했다.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신청서와 완도해양치유센터 등 변화 모습 탐지를 위한 최신 항공영상을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서비스 중이다.

올해도 도 소속 부서와 시군의 촬영 수요를 조사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토외곽 면적 지원 특별법' 대상지, 가고 싶은 섬 여는 날 행사, 유기농데이 직거래 정터 홍보, 건축경관심의, 도시재생 및 지

역활력터운 조성사업 등 100여 곳을 드론 촬영해 최신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촬영한 최신 드론영상은 전남도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보안처리 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에 대한 3D 영상 제작을 위해 고정밀 촬영도 실시한다. 시군의 상징적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을 3D 영상으로 제작해 시군 홍보나 조감도 작성에 활용토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위성영상과 드론영상을 기반으로 내륙에 이어 해양 공



순천만습지 일대를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

간정보도 구축, 해양쓰레기 수거와 유해 해양생물 관리 등 해양지역 현안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드론을 도입해 분야별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지원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도민이 신뢰하는 공간정보 서비스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쿠팡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

DK 다케이 주식회사